



콘텐츠라인 >>>>>>> CONTENTS LINE

IT 엑스포부산

U도시 부산 가능성 확인... 국제 행사 초석 다져

2005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데이터 고도화, 품질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오마 테스트페스트 넘버10

국제 모바일 표준화 시험대회 한국서 개최

ETRI 게임 핵심기술 발표회

모든 단말기 동시 연동 게임기술 개발

한국게임운영자협회 설립 발족식

KGMA, “게임마스터 위상 제고에 전력”



IT 엑스포 부산

U도시 부산 가능성 확인... 국제 행사 초석 다져

부산시와 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해 지난달 4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IT 엑스포 부산 2005'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방 IT산업 이긴 침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글 임태섭 부산일보 기자

‘유비쿼터스 도시 부산'을 주제로 지난달 1일부터 4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던 'IT 엑스포 부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97년부터 '부산 벤처플라자 &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시회'란 명칭으로 열리다 올해부터 'IT 엑스포 부산'으로 개명해 진행된 이번 행사엔 지난해보다 50개 업체가 더 많은 170개사 310개 부스로 행사 규모와 관람객 수에서도 지난 대회들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참관객도 주말과 휴일 각각 3만5,000명, 2만6,000명이 몰리는 등 총 8만6,000명으로 지난해 참관객의 2배 가까운 인기를 모았다.

체험 중심 전시회 눈길

이번 IT엑스포 부산에서는 통신과 가전, 방

송 등이 결합된 컨버전스 IT제품이 우리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유비쿼터스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위주 전시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KT를 비롯한 LG전자·마이크로소프트(MS)·소니 등 IT 대기업들이 유비쿼터스 관련 제품을 선보였고, 관람객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유비쿼터스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KT는 이번에 전시장 입구 중앙에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U시티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체험관 형태로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비리브 인(Ubi-live in) KT'란 주제로 U시티, U홈 및 컨버전스 존의 3가지 테마로 전시관을 꾸몄다.

특히 U시티 존에서는 현재 KT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적용해 구축 중인 네 가지 주제인 U교통·U항만·U전시·U헬스에 대해 소개했다. 지능형 버스 정거장 및 통합관제시스템 KT-MOS,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연, 유비쿼터스 사회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했다.

또 U홈 존에서는 네스팟 매니저 서비스에서 구현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로봇이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외부인 침입과 화재, 가스누출 상황을 탐지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현배 KT 부장(U시티 부분)은 "이번 전시는 부산 U시티 사업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며 "이는 향후 각 지역 U시티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이번 전시회에 집안의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토털 홈 네트워크 솔루션을 차량용 이동체험관으로 운

영,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LG는 특히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리빙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LnCP: Living Network Control Protocol)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이번 홈네트워크 체험관에 구현해 가정생활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IT 엑스포 부산 2005' 전시장에서 직접 시연을 하는 부산 시민

이번 이동체험관에서 LG전자는 주차차단기에 차량이 도착하면 홈넷서버 및 휴대전화를 통해 도착한 차량정보를 알려주는 주차관제서비스를 비롯, 무인택배서비스, 출입통제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 가운데 거울모니터에 오늘의 일정이나 날씨, 요리정보 등을 디스플레이한 정보거울과 인터넷 냉장고, 원격의료서비스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플랫폼의 리더로 자부하는 MS도 이번 전시회에서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솔루션으로 무장하고 주로 기업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집중 마케팅에 나섰다.

소니도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등 자사 디지털 제품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촬영한 디지털 영상을 자사 포토프린터기로 출력해주는 이벤트도 펼쳤다.

또 나루기술(NARU)과 초이스(CHOIS), 이솔정보통신 등 중소기업들도 이번 전시회에 RFID 리더와 산업자동화용 응용 프로그램 등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내놓아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개발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소 IT 기업들도

대부분 부스를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기술을 시연해 볼 수 있는 체험관 위주로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다.

이번 전시회는 특히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U시티 프로젝트를 부산시민들은 물론, 국내외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린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블거리 많았던 풍성한 부대행사

메인 전시 행사와 더불어 게임대회와 로드쇼, 컨퍼런스 등 각종 부대행사들도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했던 '제4회 부산광역시장배 게임대회'는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게임 문화를 심어주고 게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게임대회에서는 박강근·박성진·김호진씨가 단체 우승을, 손주홍·김현진씨가 단체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또 '유비쿼터스 도시 부산'이라는 전시 컨셉에 따라 마련한 '유비쿼터스 라이프 홈네트워크 로드쇼'와 'U시티 부산 세미나', 'RFID/USN 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에는 행사장마다 준비한 자리가 모두 찰 정도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밖에 주말인 퍼블릭 데이 기간 동안 전시장 내외부에서는 전시 참가 개별 기업들이 마련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주최측이 준비한 록밴드 콘서트와 클래식 음악회가 수시로 열려 일반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부산 IT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 기대

국내외 바이어 22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전시회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활발한 마케팅 상담을 펼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부산업체들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의 수출 판로 개척도 예상된다며 IT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전시회 참여업체들은 부산과 부산 IT산업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직·간접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일릭스 이창호 사장은 "올들어서 IT산업의 미래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적인 IT산업의 불황으로 국내 IT업계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포화상태인 현재의 IT시장과 신규 수요처도 한정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해외바이어들에게 부산 IT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총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인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엔 일본과 중국 등 5개국에서 24개사 73명이 참여해 부산기업 30개사와 심도 있는 협상을 벌이는 등 이번 행사에서 거둔 성과는 적잖았다.

상담내역은 1,400여건, 283억2,000만원 상당. 이중 계약 체결은 투자 양해각서(MOU) 2건을 비롯해 계약 28건 등 총 30건에 달했다. 신화정보통신의 경우 일본의 인터넷 & 멀티미디어 어드바이저 회사인 HRD와 30억원대의 수출계약 및 판매협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협약을 통해 신화정보통신은 자동화면 관련 프로그램을 시험 계약기간 1년 동안 최소 1,000카피(copy)를 수출하고 HRD측은 일본 및 미국시장 판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신화정보통신이 이번에 수출한 제품은 원하는 프로그램 화면을 자동적으로 쉽게 형성해주는 프로그램인 'T-젠'. 신화정보통신 김세규 대표는 "T-젠 시장은 세계 1,000만명, 약 3조원 정도의 잠재시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일본·미국·유럽까지 판매망을 확대해 2010년까지 세계시장의 10%인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자랑했다.

전반적으로 '성공작'이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대행사가 백화점식으로 지나치게 많아 IT업체의 제품이 그 속에 다소 묻혀버린 점은 개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신 IT경향을 보여준 각종 세미나가 정작 업체 대표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만의 행사로 그친 부분도 아쉬웠다는 평이다. 세미나가 진행된 같은 시간대에 제품을 홍보하느라 바쁜 IT업체 대표들이 참석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



2005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데이터 고도화, 품질관리부터 시작하세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05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품질관리를 주제로 지난달 2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DW와 DW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방안에 초점을 맞춰 관련 분야의 해외 석학들을 초대, 선진 기술동향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 양기석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국 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연례행사인 '2005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가 '성공적인 데이터 통합을 위한 블루오션, 데이터품질관리'라는 주제로 지난달 2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데이터웨

어하우스(Data Warehouse) 개념의 창시자인 빌 인몬(Bill Inmon), 데이터 품질(Data Quality)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로신(David Loshin) 등 해외 유수의 석학들이 초청돼 해외의 데이터 품질관리의 최신 동향과 사례가 소개됐다.

빌 인몬 인몬데이터시스템즈 사장은 데이터웨어하우스(DW)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트랜잭션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Transaction Processing Application)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일관된 정보체계를 갖춰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DW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



1

템의 문제점이 잘 나타난 사례로 미국의 보험 회사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인문 사장은 “매년 천만달러 이상을 IT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한 보험회사는 투자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갖추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 회사의 정보책임자는 현재까지 몇 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묻는 CEO의 간단한 질문에도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 회사의 각종 정보들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분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간 정보 인식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 DW가 구현되지 않은 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인문 사장의 주장이다.

한편, 인문 사장은 DW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현재 DW는 통신업체나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구축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DW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규모면에서도 현재의 테라바이트(TB)용량

에서 점차 페타바이트(PB) 규모로 확장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DW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소개됐다.

저 품질 데이터의 폐해와 데이터 품질관리의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 데이비드 로신 날리지인티그리티 사장은 “가트너그룹은 오는 2007년까지 DW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에서 데이터 품질관리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제한적인 도입이 이뤄지거나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데이터 품질관리는 더 이상 선택의 요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데이터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이슈, 비용절감 요인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 2005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에서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통한 데이터 통합 성공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2. DW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빌 인문 인문데이터시스템즈 사장
3. 데이비드 로신 날리지인티그리티 사장은 데이터 품질관리는 더 이상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어진 세션에서는 경희대 박주석 교수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 품질관리 프레임워크와 관리 지침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고, 아이티플러스 오경조 수석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품질 오류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투이컨설팅·디엔아이소프트 등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도 각각 개별 부스를 마련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통한 데이터 통합 성공 사례와 정보를 공유했다. ●



오마 테스트페스트 넘버10

국제 모바일 표준화 시험대회 한국서 개최

글 권경희 기자

국제 모바일 규격 표준화 단체인 OMA의 신규 규격 시험 행사인 '오마 테스트페스트 넘버10(OMA TestFest #10)'이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오마 테스트페스트는 2002년 프랑스에서 시작해 이번이 10회째로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공식행사이다. 현재 이 행사는 CDMA·WCDMA·GSM 부문의 무선인터넷 관련 규격들의 완성도와 호환성을 검증해 OMA(Open Mobile Alliance) 규격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4~5회 개최되고 있다.

OMA는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 등 세계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NTT 도코모, 보다 폰 등의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서,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SK텔레콤은 OMA에 이사회 멤버(BoD)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테

스트페스트는 CDMA 사업자 중에서는 최초로, 아시아 사업자로서는 중국 차이나 모바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CDMA는 물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협조를 통해 GSM 테스트 환경까지 제공함으로써, SK텔레콤은 CDMA·WCDMA·GSM 등 전 세계 모든 이동통신 방식의 테스트 망을 동시에 지원하는 최초의 테스트페스트 개최 사업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GSM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리얼 시험망을 가지고 있는 KIPA는 GSM망은 물론, 기술지원·장소제공 등 국내 모바일관련 솔루션·제조사들이 국내에서 검증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SK텔레콤과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KIPA의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는 지난해 3월 개통해 국내 모바일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장소로 제공, 테스트베드를 통해 2005년 상반기까지 2억400만달러 이상의 수출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향후 이동통신 환경의 진화에 따른 장비, SW 업그레이드

를 통해 국내 업체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테스트베드 이용자들을 위한 전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식 SKT 터미널 연구원장은 "이번 테스트페스트 개최가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의 SK텔레콤 위상을 전 세계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의 휴대전화 제조사와 솔루션 업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유수의 솔루션 업체들과 상호 연동 테스트의 기회를 갖고 국제 표준 규격 준수 여부도 검증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9월 12일 오프행사를 시작으로 5일 동안 국내외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 등에서 총 73개팀 155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회사들은 상용전 프로토타입 형태의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들과 연동테스트를 펼쳤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10번째 테스트페스트는 회원사간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



ETRI 게임 핵심기술 발표회

모든 단말기 동시 연동 게임기술 개발

글 양기석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PC · 콘솔 · 모바일 등 기기종
다바이스 간 동시 연동이 가
능한 혁신적인 게임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달 7일 ‘크로스플랫폼’ 게임 엔진 기술에 대한 공개 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술이 적용된 게임을 선보였다.

이번에 ETRI가 선보인 ‘크로스 플랫폼’ 게임엔진 기술은 PC에서 개발된 게임을 콘솔이나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써,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즉, 기존 온라인게임이 주로 동일 기종의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상호 접속이 가능한 반면 이번에 발표된 기술이 적용된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이번에 개발된 크로스 플랫폼 기술로 유비쿼터스 게임 환경이 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플랫폼에서 제작된 게임은 판타테니스(FantaTennis) · 컴뱃 존(Combat Zone) · 믹스업(Mixup) 등 총 세 가지로 와이브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되는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

ETRI는 이번 게임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연간 1,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기술은 국내 온라인 게임산업이 1조원 시대를 돌파한 이후 중국 · 일

본 등의 견제로 다소 정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만제 ETRI 디지털콘텐츠연구단장은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신기술 개발로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철 첨단게임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게임업체들은 핵심 게임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게임들이 작품성을 갖춰 보다 훌륭한 상품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ETRI는 현재 레인콤을 비롯해 콘텐츠 개발업체들과 협력해 와이브로 단말기용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게임운영자협회 설립 발족식

KGMA, 게임마스터 위상 제고에 전력

글 권경희 기자

국 내 온라인게임의 운영을 맡고 있는 게임마스터(Game Master, 이하 GM)들의 교육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게임운영자협회(KGMA)'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달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국내 1만5,000여명 게임운영자들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KGMA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KGMA 사단법인 결성은 그동안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의 규모가 세계 정상을 지향하는 가운데에서도 서비스의 주체인 GM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권익보호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지적에서 이뤄졌다.

협회는 ▲게임운영서비스 표준안제시 ▲전문화 교육제공 ▲현업종사자 이미지 향상 및 권익 보호활동 등을 골자로 게임운영자들의 미래역할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

장을 맡은 지현준씨 등 KGMA의 초대임원을 담당할 인물도 8~10년 이상의 운영경력을 보유한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발족식에는 게임 운영자들과 게임업계 대표 및 유관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 운영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게이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서비스 표준화와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운영자들은 향후 설립되는 한국게임운영자 협회를 통해 최적의 게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을 도입(CRM·업무표준화 및 자동화)하고, 게임운영 관련 교육 및 학술행사 등의 관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온라인게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 게임시장 서비스 표준화를 선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게임운영자협회 설립 추진위의 지현준 위원장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협회 설립 첫 해에는 표준운영 매뉴얼 제작, 게임서비스운영자 교육과정 및 세미나 개설 등 게이머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KIPA의 고현진 원장은 "오늘 모임은 세계 최초의 게임 운영 전문가 그룹이 결성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산업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 최성호 지식정보산업팀장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협회는 향후 세계 게임업계 서비스 표준을 선도하고, 정부는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게임 강국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